

“진짜 엄마 되니 연기 달라졌죠”

‘나를 찾아줘’ 배우 이영애

“제가 그동안 엄마가 됐기 때문에 아이를 찾는 엄마 역할을 더욱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영화 ‘나를 찾아줘’로 ‘진절할 금자씨’(2005) 이후 14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하는 배우 이영애(48)가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나를 찾아줘’는 실종된 지 6년 된 아이를 찾자는 연락을 받고 낯선 곳으로 떠난 정연의 이야기를 그리는 스릴러 영화다. 경찰 홍 경장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무엇인가 숨기고 있음을 직감한 정연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찾기 시작한다. 정연을 이영애가 연기했다.

4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 CGV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이영애는 “진절할 금자씨”의 금자씨도 모성애가 있는 엄마였지만, “나를 찾아줘” 정연과의 차이는 제가 정말 엄마가 됐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여러 가지를 더 느낄 수 있었고 더 힘들고 아팠다”고 말했다.

그는 “진절할 금자씨”만큼 제 전환점이 될 작품일 것 같은 기대와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애는 실제 자신의 육아 경험이 영화에도 녹아날 것으로 기대했다.

“제가 직접 7~8년 엄마로서 살아왔는데, 그래서 제 안에 담긴 감정들이 영화에 어떻게 나타났을지 저도 궁금해요. 제가 결혼 전에는 역할과 장르의 색깔에 집중해서 육성을 냈는데, 엄마가 되고 나니까 제가 하는 작품이 적어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된 이후에) 작품을 고르는 기준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나 싶어요.”

복귀작으로 선택한 이 작품이 “스릴러지만 따뜻하다”고 한다.

“감동이 있고, 착한 사람만 나오는 것

잃어버린 아이 찾는 엄마 역
14년만에 스크린 컴백

육아 경험 영화에 녹여낼 것

이 아니라 지리멸렬한 인간 군상이 나오는데 그것이 현실 같았다”는 그는 “그것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여운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늦게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고 엄마가 됐기 때문에 그 생활에 집중하느라고 시간이 이렇게 지난 지 몰랐다”며 “이런 시간이 큰 자양분이 돼서 좋은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뿌리가 되지 않았나 싶다. 앞으로도 가정(주부)과 배우로서의 균형을 맞춰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고 다짐했다.

아들을 찾는 정연을 경계하는 홍 경장은 유재명이 맡았다.

유재명은 “작품이 상징적이고 스릴러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도 일상적인 호흡도 필요로 하는 작품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영애와 함께 연기한 데 대해서는 “함께 호흡을 맞출 거라고 상상도 못 해봤었다”며 “준비하고 노력했던 것들을 가지고 호흡을 맞추는 과정이 상상 이상의 행복이었다”고 돌아봤다.

연출은 김승우 감독이 맡았다. 이번 작품이 데뷔작이다.

김 감독은 “12년 전 우연히 아이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보고 그걸 붙인 부모님과 그 뒤에 계신 분들이 떠올라서 마음이 아팠다. 그 후 운명적으로 글을 쓰게 됐다”며 “모두가 진실을 은폐하는 곳에 아이를 찾기 위해 뛰어들 정연이 아이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우리가 있고 사는 소중한 가치에 대한 영화다”고 설명했다. 개봉은 오는 27일이다.

/연합뉴스



영화 ‘기생충’ 북미서 흥행 ‘설국열차’ 넘었다

상영관 3개→463개로 확대

영화 ‘기생충’이 봉준호 감독의 전작 ‘설국열차’ (2013) 기록을 넘어서며 북미에서 흥행하고 있다.

4일 CJ ENM은 북미 박스오피스 집계 사이트 모조를 인용해 ‘기생충’이 지난 1일(현지시간) 누적 박스오피스 매출 565만9526 달러(한화 66억466만원)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에 개봉한 봉 감독 전작 ‘설국열차’의 누적 박스오피스 매출 456만3650달러(한화 53억2349만원)를 이미 넘어선 기록이다.

당시 ‘설국열차’는 8개 상영관에서 개봉해 오프닝 수익 17만1187달러(한화 1억9968만원)를 올렸으며 이후 상영관 수를 최대 356관까지 확장했다.

‘기생충’은 지난달 11일 3개 상영관에서 개봉해 오프닝 수익 38만4216달러(한화 4억4818만원)를 기록했다. 극장당 수익은 12만8072달러(한화 1억4901만원)로, 북미에서 개봉한 역대 외국어 영화의 극장당 최고 평균 매출 기록이자 전체 영화로는 ‘라라랜드’ (2016) 이후 가장 높은 성적이다.

현재 ‘기생충’ 상영관은 43배 늘어난 463개관이다. 개봉 3주 차 주말인 25~27일 3일 동안 182만6424달러(21억3052만원)의 박스오피스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개봉 2주 차 주말(18~20일) 매출(124만1334달러)보다 47.1% 증가한 것이다.



특히 ‘기생충’은 극장당 평균 매출에서 박스오피스 상위권 영화들을 앞선다. 25~27일 박스오피스 1, 2위를 차지한 ‘말레피센트 2’와 ‘조커’가 각각 극장당 5천100달러, 4890달러를 벌였을 때 ‘기생충’은 1만4158달러의 수입을 냈다.

북미 관객과 평론가들도 ‘기생충’에 호평을 보낸다. 로튼 토마토 지수는 99%, 메타크리틱 평점도 95%를 기록 중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봉준호 감독의 가장 최신작이자 걸작이며, 올해 내가 본 최고의 영화다”라고 평가했으며 유명 비평가 A.O. 스콧은 뉴욕 타임스를 통해 “‘기생충’은 공포, 풍자, 비극을 다양하게 보여 주며 한국뿐만 아니라 그 어디에도 존재하는 계급 투쟁에 관련한 날카로운 교훈을 전달한다. ‘기생충’을 올해의 영화로, 봉준호를 세기의 감독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작품이다”고 극찬했다.

한편, ‘기생충’은 세계 30개국에서 개봉했으며 프랑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호주 등 11개국에서는 현지에서 개봉한 역대 한국 영화 가운데 흥행 1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KBS ‘연예가중계’ 36년만 종영…내년에 리뉴얼

KBS 2TV 연예 정보 프로그램 ‘연예가중계’가 36년 만에 종영한다.

KBS는 4일 “‘연예가중계’가 36년간 오랜 사랑을 받아왔지만, 프로그램을 둘러싼 제작 환경과 형식 등에 큰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하고 폐지가 아닌 종

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KBS는 내년 상반기 중 새로운 시대, 트렌드에 맞춰 달라진 포맷과 내용의 연예 정보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고 예고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모두 다 쿵따리(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4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UHD 특선 드라마 W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한국인의 밥상(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00 조선로코-녹두전(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45 살림하는 남자들(재)	00 12 MBC 뉴스 20 다큐 나는 산다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VIP(재)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거북이 뉴스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킴지 동물교실 2 50 2시 뉴스외전	00 뉴스브리핑
[2]	00 KBS 뉴스 10 다큐생생(재)			
[3]	00 세계는 지금 스페셜 10 KBS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사장님이 미쳤어요(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뽀빠이 모두가 놀자 스페셜 50 뽀빠이 모두가 놀자	
[4]	00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20 모두 다 쿵따리(재)	00 제23회 민원봉사대상 시상식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다큐 공감(재)	00 5 MBC 뉴스 25 경성판타지 스페셜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VIP(재)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7]	00 KBS 뉴스 7 40 전라도 매력창	50 우아한 모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쏘지락
[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일자리 전국 굵집	55 특별기획 농업이 미래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50 편애중계	00 VIP
[10]	00 역사저널 그날 55 더 라이브	00 조선로코-녹두전		
[11]	35 UHD 숨터 40 특선다큐멘터리 스티븐 스피버그의 질문 우리는 왜 중요하는가	10 고립낙원	10 PD수첩	20 불타는 청춘 1~2부
[12]	25 KBS 뉴스 35 KBS 결각 다큐멘터리(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KBS 드라마 스페셜 2019(재)	05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1	
07:00 로보가 폴리 07:15 꼬마버스 타요 07:30 뽀빠이 뽀빠이 뽀빠이 07:45 뽀빠이 뽀빠이 08:00 뽀빠이 뽀빠이 08:30 뽀빠이 뽀빠이 08:45 뽀빠이 뽀빠이 09:00 뽀빠이 뽀빠이 09:30 뽀빠이 뽀빠이 10:00 뽀빠이 뽀빠이 10:30 뽀빠이 뽀빠이 10:50 뽀빠이 뽀빠이 11:20 뽀빠이 뽀빠이 12:00 뽀빠이 뽀빠이	12:10 건축탐구 - 집 13:00 전대미문 다큐실험 UP, 63세 그들 13:55 미래교육 플러스 14:45 물방 14:55 꼬마버스 타요(재) 15:10 로보가 폴리(재)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15:55 출동! 슈퍼워즈(재) 16:10 뽀빠이 뽀빠이(재) 16:25 마사와 곰(재) 16:40 뽀빠이 뽀빠이(재) 17:00 EBS 뉴스 17:20 그림을 그려요 17:30 뽀빠이 뽀빠이(재)	17:45 뽀빠이 뽀빠이(재) 18:00 생방송 특!특! 보니 하니 19:00 스파이더맨 19:30 생방송 판다다 20:00 뽀빠이 뽀빠이 20:40 세계테마기행 1~2부 〈히말라야의 가을-구룡폭이 사는 법〉 21:30 한국기행 〈그리워라, 가을 소리 2부 들리나요? 마음 소리〉 21:50 EBS 다큐프라임 〈역사의 빛, 청년〉 22:45 건축탐구 - 집 23:35 미래교육 플러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5일(음 10월 9일 丙午) ☎ 010-9790-8237	
	36년생 갈림길에 서게 된다. 48년생 잦으면 가치를 하락시킬 것이다. 60년생 보기와는 달리 실속이 있을 것이니 기대해도 된다. 72년생 상대의 말을 다 들어 본 후에 차분하게 판단해도 된다. 84년생 핵심 사항을 놓치지 않아야 대국을 조성할 수 있다. 96년생 오늘의 노력은 미래의 경쟁력을 낳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8, 84	
	37년생 객관적인 자제만이 활로를 열어 주게 된다. 49년생 들고 도는 세상의 이치를 실감하게 될 것이다. 61년생 일관성 있는 진행만이 결실로 이룰 것이다. 73년생 역마가 중중하니 몸이 돌이라도 부족할 판이다. 85년생 정도를 견뎌야만 한다. 97년생 처세와 만남의 순기능이 두드러진다. 행운의 숫자 : 95, 36	
	38년생 환경이 바뀌면서 바쁘게 움직이는 양태이다. 50년생 조금 더 버티면 난관을 견고해질 것이다. 62년생 실익을 잘 따져서 값진 일에 시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4년생 불변하다면 수정하거나 정리해버려도 무리가 없다. 86년생 철저하게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98년생 애감하여 왔던 바가 현실적으로 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행운의 숫자 : 81, 85	
	39년생 대세는 기울었다. 51년생 모순된다면 굳이 얹매일 필요가 없다. 63년생 의견을 달리하는 이가 보일 것이니 상응하는 대책을 세워야겠다. 75년생 형편이 점점 향상될 것이니 차분하게 기다리자. 87년생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아니 되느니라. 99년생 대수롭지 않은 일이니 신경 쓸 필요도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 14, 17	
	40년생 인연은 새로우나 기대할 바는 못 된다. 52년생 사실 있는 그대로의 현태를 냉철히 바라보자. 64년생 뜻밖으로 이종 또는 삼종의 행운이 따르리라. 76년생 능력이 전담이 될 수도 있으니 말을 아껴라. 88년생 새로운 것이 항상 좋지 않은 법이다. 00년생 과당성 있는 집합이 중하다. 행운의 숫자 : 63, 60	
	41년생 노파심은 도음이 되지 않는다. 53년생 주의하라. 65년생 상대적으로 특별한 제안을 받을 수도 있다. 77년생 편리한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맞다. 89년생 안정 국면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01년생 똑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태도에 따른 차이가 크다. 행운의 숫자 : 89, 96	